

광주관광공사, 법규 위반·관리 부실 '수두룩'

시의회 행정감사서 잇따른 질타
투어버스 무면허·무자격자 투입
소방 주정차 금지구역에 승강장
사진·운행일지 등 허위 제출 의혹
공사 "반성... 서둘러 진위 파악"

광주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DRT) 광주투어버스와 시티투어버스에 무면허 차량이 투입되는 등 법규 위반과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채은지 의원은 4일 광주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에서 "광주 시티투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를 취득한 차량만 운행해야 하나, 시티투어버스 3대 중 한 대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행해

왔다"며 "더욱이 운전자 또한 '3년 이상 무사고자'가 자격 요건이지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무사고 경력) 274일인 지원자가 뽑혔다"고 밝혔다.

DRT와 시티투어버스는 광주송정역·광주공항·유스퀘어터미널과 주요관광장소를 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최근에는 기아챔피언스필드와 김치축제장·김대중컨벤션센터 등으로 노선이 확대됐다.

채 의원은 △시에 신고된 업체 차량과 실제 운행 차량이 다른 △과업 기획서에 적힌 버스 랩핑이 이뤄지지 않음 등을 추가 지적했다.

그는 "광주 시티투어는 광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편의·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버스와 운전자의 자격을 제대로 검증해야 시민의 안전

을 책임질 수 있다.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귀순 의원은 시티투어 등 공사의 운영·관리를 두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설치된 광주투어버스 승강장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돼 모두 과태료 대상"이라며 "한참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관리주체로서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공공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시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광주관광공사의 허위·미비 자료 제출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채 의원은 행정사 무감사를 위해 광주관광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운전자 유니폼과 각 버스별 차량운행일지를 요청했다. 그는 "광주관광공사가 DRT 운전자

유니폼이라고 낸 사진은 2016년 해당 운수 업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이다. 부분 편집 후 제출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운행일지도 급조했다는 것이다. 같은 차량에 다른 운전자가 기입돼 있고 운행 주유량 등은 아예 적히지도 않았다. 이는 공사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수정했거나 제출전 확인을 안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서임석 의원은 "제출된 자료들의 수치가 원 단위·천 단위·만 단위 등 제각각이다. 표 또한 합계가 위 아래로 나뉘어져 있는 등 통일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광주관광공사가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시티투어 버스를 2년간 방치해왔다"면서 "공사가 시티투어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쇄신 후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 △직급 통합 △미화 공무원 결원 △킬러콘텐츠 부재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관광공사 측은 한정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버스 운전자는 모두 '예비'였다고 밝혔다. 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줄곧 시티투어에 활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불법 승강장에 대한 문제는 조속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자료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 의원들의 지적에 모두 공감하고 서둘러 진위를 파악하겠다"며 "지난 2023년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긴 조직간 직급 불균형에 대해서도 미화 공무원 문제와 함께 올해 안으로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전남 지역 기온 '뚝' 당분간 추운 날씨 이어져

"급격한 기온변화 건강관리 유의"

5일부터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당분간 초겨울 수준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5일 광주·전남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인다"고 4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 수준으로 평년(최저 3~11도·최고 18~19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후 6일에는 더 추워져 아침 최저기온이 2~10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를 보이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

고 얼음이 어는 곳도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 보고 있다.

또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6일까지 초속 15m 수준의 강한 바람도 예보됐다. 4일 오후 6시 기준 흑산도·홍도 지역에 강풍 주의보가, 서해남부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새벽시간대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보돼 차량 운행 시 주의도 당부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북구, 친환경 제설제 하역 작업

입동을 사흘 앞둔 4일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직원들이 북구 문흥동 제설 자재보관소에서 올 겨울 폭설 시 관내 도로 제설작업에 사용할 친환경 소금 등의 제설제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북구는 제설작업에 사용할 친환경 제설제 800톤을 비축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입동을 사흘 앞둔 4일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직원들이 북구 문흥동 제설 자재보관소에서 올 겨울 폭설 시 관내 도로 제설작업에 사용할 친환경 소금 등의 제설제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북구는 제설작업에 사용할 친환경 제설제 800톤을 비축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입동을 사흘 앞둔 4일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직원들이 북구 문흥동 제설 자재보관소에서 올 겨울 폭설 시 관내 도로 제설작업에 사용할 친환경 소금 등의 제설제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북구는 제설작업에 사용할 친환경 제설제 800톤을 비축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나건호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전남일보 공동기획

항일·독립의 현장에서 영·호남은 늘 하나였습니다

영남은 광주·전남인이 영남인과 더불어 항일·독립·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함께 실천한 현장입니다.

한산도·노량 등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수영 수군이 참여한 전투지에는 남도 수군들의, 진주성에는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참여한 김천일·최경회·고종후 등 광주·전남 의병들의 항일의 혼이 서려 있습니다.

부산 다대포에는 녹도 만호로 이순신 수군의 돌격대장이었던 정운 장군 순의비가, 민주공원에는 6월항쟁의 처음과 끝을 담당한 부산 출신 박종철과 광주 출신 이한열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영남 곳곳에는 항일·독립·민주화를 앞장서 실천한 남도인들의 혼이 서려 있습니다.

